




##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제8차 회의록

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15:00
장 소	본관 4층 로터스홀
참석자	13명 / 박태선(동문 및 교외인사), 김태호(동문 및 교외인사), 이준혁(동문 및 교외인사), 권승구(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장원희(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류준형(과학기술대학 원자력·에너지·전기공학과), 신성준(의과대학 의학과), 김계철(예술대학(원)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이용수(교양융합교육원 교양융합팀), 조승우(문과대학 철학과), 최성빈(상경대학 경영학부), 이승준(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강현재(교무처 학사지원서비스팀)
불참자	
<p>&lt;개회 선언&gt;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p> <p>&lt;회의록 낭독&gt; 1. 간사인 방중혁 기획예산실장이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2. 평의원의 의견 없음을 확인 후 회의록을 확정함</p> <p>&lt;안건 상정&gt; 1. 학칙 개정(안) 심의 2. 2025학년도 결산(안) 자문 (WISE/의료원/서울)</p> <p>&lt;주요 의견&gt; <b>■ 학칙 개정(안) 심의</b> 1. 김형배 서울캠퍼스 교육기획팀장이 서울캠퍼스 학부 관련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p>	

간	김태호	권승구	신성준
서			
명			

- 교육과정 범위 확대: (기존) 교양과목, 전공과목 → (개정) 교양과목, 전공과목, 비교과프로그램
- 2027학년도 학부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

	모집단위		입학정원		비고
	2026학년도	2027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경찰사범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u>산업보안전공</u> <u>범죄과학전공</u> <u>교정학전공</u>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u>범죄과학전공</u> <u>법심리학전공</u> <u>범죄수사학전공</u>	62	62	전공 순서 및 명칭 변경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u>142</u> <u>94</u>	<u>139</u> <u>100</u>	정원 조정(-3명) 정원 조정(+6명)
미래융합대학	범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범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 - -	<u>1</u> <u>1</u> <u>1</u>	정원 조정(+1명) 정원 조정(+1명) 정원 조정(+1명)
열린전공학부			<u>229</u>	<u>223</u>	정원 조정(-6명)

- 학과명 변경 및 학과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수여학위 신설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사범대학	경찰사범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u>산업보안전공</u> <u>범죄과학전공</u> <u>교정학전공</u>	경찰학사 범죄학사 범죄학사 범죄학사	경찰사범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u>범죄과학전공</u> <u>법심리학전공</u> <u>범죄수사학전공</u>	경찰학사 범죄학사 법심리학사 범죄수사학사
	첨단융합대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첨단융합대학	<u>의료인공지능공학과</u> <u>지능형기계시스템학과</u>	공학사 공학사
	예술대학	<신설>	<신설>	예술대학	<u>한국음악과</u>	음악학사
연계전공	-	<신설>	<신설>	-	<u>법학전문대학원</u>	<u>법학전문대학원</u>
	-	<신설>	<신설>	-	<u>복지기술융합설계</u>	<u>사회복지학사</u>
융합전공	-	<u>안타라전스로봇</u>	<u>안타라전스로봇</u>	<삭제>	<삭제>	

- 김계철 의원이 미래융합대학의 정원을 정원 외로 운영하다가 다시 학과별 1명씩 배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김형배 팀장은 미래융합대학은 기본적으로 정원 외로 운영되나, 3개 학과 신설 당시 학과 운영을 위해 최소 정원이 필요하여 배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이후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0명으로 조정된 것은 첨단 분야 관련 학과 정원 조정의 일환이었으며, 이후 재논의를 통해 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이다.
- 권승구 의원이 학위명 변경 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 김형배 팀장은 교육부 차원의 별도 기준은 없고, 학교 자율로 운영중임을 답하다. 학과의 수요에 따라

간	김태호	권승구	신성준
서			
명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 및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다.

- 류준형 의원이 경찰사법대학의 범죄 관련 전공과 미래융합대학 범죄학과 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김형배 팀장은 두 과정은 모집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하다. 미래융합대학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으로 운영되며, 경찰사법대학은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구조라고 밝힘. 또한 학문적 유사성은 있으나, 학생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경찰사법대학 전공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장원희 의원이 동일한 학위명이 수여되는 점에 대해 질의하다.
- 김형배 팀장은 해당 사항은 관련 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하다.
- 조승우 의원, 김계철 의원, 신성준 의원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표현은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며, 문구 해석상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다.
- 김형배 팀장은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이 강의 외의 행사 차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전공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과과정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답하다.

\* 관련 참고자료 추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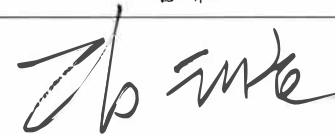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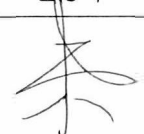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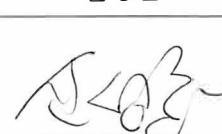
2. 전병건 서울캠퍼스 대학원실장이 서울캠퍼스 대학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특수대학원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 규정 반영: 2027학년도 1학기

구분		입학정원		변경 사유	
		기 존	변 경		
행정대학원	<이전신설>융합상담코칭학과	<이전신설>융합상담코칭전공	90	105 (+15)	미래융합대학원 폐지 및 '융합상담코칭학과' 이전 (행정대학원으로 통합)
<폐지> 미래융합대학원	<이전폐지>융합상담코칭학과	<이전폐지>융합상담코칭전공	40	- (-40)	
경찰사법대학원	<신설>범죄수사학과	<신설>범죄수사학전공	70	95 (+25)	범죄수사학과 (범죄수사학전공(온라인) 신설)
문화예술대학원	<이전>문예창작학과	<이전>시전공, 소설전공, 뉴미디어창작전공	130	90 (-40)	글로벌인문융합대학원 신설 및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글로벌인문융합대학원으로 이전
<신설> 글로벌인문융합대학원	<신설>디지털인문학학과 <이전신설> 문예창작학과	<신설문예창작학과>인문학 전공, 문화예술과 공역기원전공 <이전신설>시창전공, 소설창전공, 뉴미디어창작전공	-	40 (+40)	

○ 특수대학원 전공명 변경 : 2026학년도 2학기

- 법무대학원 전공명 변경: 법무대학원 법학과 (기존) 부동산건설개발법무전공 → (개정) 부동산법·정책전공
- 장원희 의원이 융합상담코칭학과 소속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하다.
- 전병건 실장이 해당 학과는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이며, 학부 단과대학에 설치된 관련 학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사한 조직 체계로 편성된 것이라고 답하다.

간 서 명	김태호	권승구	신성준
			

3. 임종민 WISE캠퍼스 교육혁신팀장이 WISE캠퍼스 학부 관련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추진 결과 반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학습자 전담 정원의 학부(1) 및 학부 내 학과(3) 신설</li> <li>- 학부: <u>미래커리어학부</u></li> <li>- 학과: <u>문화창의산업학과, 디지털비즈니스혁신학과, 휴먼서비스케어학과</u></li> </ul>	정원 외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전공자율선택제(유형1) 지속 추진</li> <li>- <u>글로벌인재학부 정원 120명 → 130명(+10명)</u></li> <li>•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등 결과(-9명) 및 학과 간담회 결과(-1명) 반영</li> <li>- <u>수학교육과 정원 28명 → 18명(-10명)</u></li> <li>•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2027학년도 5명, 2028~2031학년도 6명) 반영</li> <li>- <u>의예과 정원 120명 → 54명(-66명)</u></li> <li>※ 2024학년도 정원(49명) 기준 5명 증원</li> </ul>	정원 내
자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과) 의견을 반영한 명칭 변경</li> <li>- <u>항공서비스무역학과 → 글로벌무역학과</u></li> <li>- <u>글로벌혁신공학부 → 스마트안전공학부</u></li> <li>• 학부(과) 의견을 반영한 학부 분리</li> <li>- <u>글로벌혁신공학부 자동차소재부품공학전공 →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u></li> </ul>	

- 이용수 의원이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간 동일 학과명(글로벌무역학과)에 대한 캠퍼스 간 합의 여부를 질의하다.
- 임종민 팀장이 서울캠퍼스와의 별도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 중인 학과 중에서도 양 캠퍼스 간 동일 명칭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며, 관련하여 교육부의 별도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답하다.
- 류준형 의원이 의예과 및 의학과 의 입학정원에 대해 질의하다.
- 임종민 팀장이 의학계열은 6년제로 운영되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정원 표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다.
- 이용수 의원이 의예과의 실제 운영 인원에 대해 질의하다.
- 임종민 팀장이 2026학년도 기준 규정상 입학정원은 120명이었으나, 실제 모집인원은 49명으로 운영되었음을 답하다.
- 신성준 의원이 의과대학 감원으로 인한 영향이 크고 타 대학 대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이나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다.
- 임종민 교육혁신팀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31년까지는 정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다.
- 이승준 의원이 의학계열의 부족 인원에 대해 다른 모집단위에서 추가 선발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임종민 교육혁신팀장이 해당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답하다.

간	김태호	권승구	신성준
서			
명			

## ■ 2025학년도 결산(안) 자문(WISE/의료원/서울)

※ 각종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외비이므로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음

### 1. [WISE캠퍼스] 강동식 재무회계팀장이 WISE캠퍼스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류준형 의원이 등록금 인상 및 정원 외 중국인 학생 증가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지원 관련 대책에 대해 언급하다.
- 강동식 팀장이 해당 의견에 공감하며, 관련 사항이 기획 및 예산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이용수 의원이 기부금 현황 중 산단전입금 감소 요인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추세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동식 팀장이 감소 요인은 의학계열에서의 금액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며, 일시성 여부에 대해서는 산학 관련 부서와 추가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답하다.

### 2. [의료원] 이경민 전략기획팀 파트장이 의료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류준형 의원이 의료원 결산안이 회계 마감 2월 이후 현재까지 미완성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 이경민 파트장이 정확하지 않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기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경주병원 및 경주한방병원의 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답하다.
- 박태선 의장이 결산서 완료 이후 총괄표 및 자금계산서를 평의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다.
- 김태호 의원이 향후 5년간의 추정 손실액 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전적인 재무 추정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또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규 수익 창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 이경민 파트장이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의정 사태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다. 향후 보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하다.
- 김계철 의원이 유동비율이 50%인 부분을 지적하며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임을 지적하다.
- 이경민 파트장이 해당 부분에 동의하나, 타 기관들도 유사한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하다. 또한 지난해 융자 반영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답하다.
- 권승구 의원이 농협 부채 잔존 여부와 의료 외 수익 구조에 대해 질의하다.
- 이경민 파트장이 일산병원 개소 당시 발생한 농협 부채는 모두 상환 완료되었으며, 기부금 및 장례식장 운영 등을 통해 의료 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답하다.
- 김태호 의원이 의료원 수익창출을 위해 실무적 차원 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다.
- 이경민 파트장이 최대한 의사 충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실제로 점진적으로 수익이 증대되고 있음을 답하다.
- 박태선 의장이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적자 폭 감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특히 의료진 확보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을 요청하며, 의료원의 이미지가 곧 동국대학교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다.

간 서 명	김태호	권승구	신성준
			

3. [서울캠퍼스] 임지한 재무팀장이 서울캠퍼스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김계철 의원이 예산상 금액과 결산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임지한 팀장이 매 해 예산 금액과 결산 금액의 차이는 발생해왔으며, 자금이 남은 상황은 아님을 설명하다. 국고사업비의 집행 시기,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이월자금은 기획예산실에서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김계철 의원이 보수 지출 항목 중 특별강의료에 대해 질의하다.
- 임지한 팀장이 미래융합대학 및 한국어교육원의 강사료와 각 학과별 강의 등에 대한 비용이 특별강의료로 산정된다고 설명하다.
- 조승우 의원이 법정부담금 전입금의 부담률에 대해 질의하다.
- 임지한 팀장이 법인에서 서울캠퍼스로 보내준 금액을 기준으로 100% 부담률로 산정하고 있다고 답하다.

<기타 의견>

1. 권승구 의원이 사회변화에 발맞춰 탄력적으로 학사 행정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다.
2. 박태선 의장이 학교가 재정측면에서의 위기 상황에 있음을 체감한 만큼 컨설팅 등의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다.

<회의 결과>

1. 학칙 개정(안) 심의 완료
2. 2025학년도 결산(안) 자문 (WISE/의료원/서울) 완료

<회의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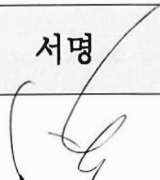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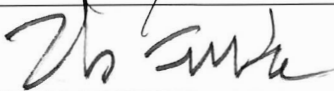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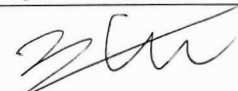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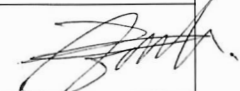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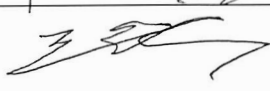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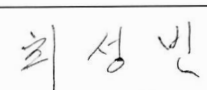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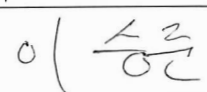
의장은 추가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간	김태호	권승구	신성준
서			
명			

- 이상 -

2026. 4. 16.

위의 사실을 확인함.

구분	성명	서명
대학발전 평의원	박태선	
대학발전 평의원	김태호	
대학발전 평의원	이준혁	
교원	장원희	
교원	권승구	
교원	류준형	
교원	신성준	
직원	김계철	
직원	이용수	
학생	조승우	
학생	최성빈	
조교	이승준	
행정조교	강현재	